

濟州流配祭文考

梁 淳 瑛

I. 序 論

일반적으로 “漫錄, 漫筆, 隨記, 隨錄, 雜記, 雜錄, 筆記, 閑話” 등의 이름이 붙은 典籍들이 거의 다 수필에 속한다. 이것을 한문학의 문체로 바꾸어 살펴보면 ‘辭, 賦, 表, 奏, 啓, 策, 疏, 書, 序, 跋, 記, 銘, 頌, 行狀, 傳, 碑, 誌, 祭文, 上樞文, 雜著’ 등이 다 동일한 수필문학에 속하여 그 범위는 굉장히 넓다.¹⁾

祭文이란 죽은 사람을 조상하는 글로서, 祭物을 올리고 祝文처럼 읽는 일종의 儀式文이다. 유교를 그 이념으로 하였던 조선사회에서 奉祭祀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던 만큼 죽은 사람의 생전의 덕을 기리고 명복을 비는 제문은 무수히 많이 지어졌던 것이다. 이 무수한 제문을 다 수필의 영역에 수용한다는 것도 무리거니와 제문의 격식에만 시종하는 글들은 수필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 문학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학적이어야 한다 해서 제문의 격식을 걸어한 것이나, 지나친 감상 일변도의 작품을 시칭하는 것이 아니다. 제문의 격식을 구비함과 동시에 수필이 갖는 격조를 함께 갖추어야 하겠다. 이러한 격조를 갖춘 제문이란 슬픔이나 死者의 덕의 칭송에 있어 절제와 승화를 획득한 것을 말한다.²⁾

우리 나라의 경우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祭文은 발달했으나 문체 분류상 挽歌, 挽歌詩의 발달은 지극히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流配祭文은 英祖 때의 尹塾의 「貞敬夫人李氏祭文」과 憲宗 때의 金正

師範大學 副教授

1) 崔康賢, “隨筆” 「韓國文學概說」 螢雪出版社, 1980. p. 282.

2) 張德順, “祭文과 수필의 格調”, 「韓國隨筆文學史」 새문사, 1985. p. 204.

喜의 「夫人禮安李氏哀逝文」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兩者가 유배적 상황 속에서 喪配를 당했다는 점에서 그 운명이 같으며 兩者가 유배지 제주도 대정현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유배에서 풀려나와 부인의 죽은 사실을 알았고 후자의 경우 계속하고 있는 유배 중에 부인의 타계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있고, 전자는 부인의 죽음을 애도한 祭文의 표기를 한글로 기사한 국문식제문이라면 후자는 한자로 기사한 한문식제문이란 점에 있다.³⁾

전자인 尹塾의 「貞敬夫人 李氏祭文」을 流配祭文으로 보는 근거는 準流配文學의 개념 규정 ②에 해당하는 이른바 창작연대가 확실하고 유배를 겪은 작가의 작풍으로서 그 내용이 유배생활이 끝난 직후 세상에 대한 염세를 일으켜 심적 상황으로 연속된 유배적 분위기의 성격을 띤 작품으로 확고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⁴⁾

忠肅公 尹塾의 친필인 한글 祭文이 그 후손 尹用滿님의 호의에 의하여 金一根님에 제공되어 그 문헌적 각광을 받게 된 셈이다.⁵⁾ 종래에 한글 祭文이라면 閨中에서 지은 歌辭形式인 까담에 閨房歌辭로 취급되어졌지만⁶⁾ 尹塾의 한글 祭文은 士大夫의 작에다가 漢文 長詩形인 文章들이요, 歌辭가 아니니 그 한글 祭文을 閨房歌辭로 본 종래의 견해에 異色을 던져 주는 바라고 지적되고 있다.⁷⁾ 尹塾의 祭文 研究함에 있어 金一根님의 업적에 도움 받은 바가 크다.

宜祖代 湖睦 安敏學(1542~1601)이 자기 아내를 死別하고 그 슬픔을 한글로 祭文을 지어서 장례를 지낼 때 棺 속의 屍身 위에 덮어서 成墳하였던 것이 4백년 뒤인 1978년에 그 후손에 의하여 移葬時 發掘된 祭亡室郭氏文(가칭)이란 것이 있어⁸⁾ 한글 祭文을 閨房歌辭로 본 종래의 견해에

3) 金鉉龍, “祭文에 관한 研究” 「文湖」3집, 建國大學校, 1964. p. 108.

‘祭文을 漢文式祭文과 祭文式歌辭로 구분해 봤고 祭文의 始初에 대해선 佛敎에서 亡者를 위해 僧侶가 佛經을 외우는데서, 그리고 葬喪禮에 哭하는 婦女들의 辭說서는 痛哭의 文字化, 巫堂들의 喪祭參禮와 女子들의 祭祀 參與는 祭文 生成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4) 拙稿, 「李朝流配文學研究」(碩論, 高麗大學校 大學院, 1969) pp. 6-7.

筆者는 이 流配文學과 準流配文學으로 나누어 概念 規定을 한 바 있다. 곧 ① 流配作家가 유배 작품을 창작한 사실이 확실하고, 그 창작연대도 流配時에 지은 것으로 확실한 것과 ② 流配당한 것이 확실하고, 유배 작품으로서 그 작연대가 未詳이나 내용이 流配의인 성격을 띤 작품을 純流配文學으로 그 개념을 규정짓는다.

그리고 ① 作家·창작연대가 未詳이지만 내용이 유배적 性格을 띤 작품인 것과 ② 流配를 겪은 작가의 작품으로서 그 내용이 流配生活이 끝난 직후 세상에 대한 厭世를 일으켜 心的 狀況으로 연속된 流配的 雲團氣의 性格을 띤 작품으로 창작연대가 확실하거나 未詳인 작품을 準流配文學으로 그 개념을 규정짓는다. (拙稿 「前揭書」 pp. 10-11.)

이 필자의 개념 규정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論文은 池鍾玉님의 「流配文學研究序說」(木浦大 論文集, 제1집, 1979. p. 40)에서 볼 수 있다.

5) 金一根, 「상명사대」 3號(1971), 「뿌리깊은 나무」 創刊號, 2號(1976), 「제주도」 제69호(1976)에 부분적으로 소개되었다.

6) 金鉉龍, 「前揭書」, p. 108.

7) 金一根, “貞敬夫人 李氏祭文” 「人文科學論叢」 9집, 建國大學校 1976. p. 125. 本攷의 底本은 金一根님에 의해 발췌된 資料를 근거로 한다.

8) 具壽榮, “4백년 屍身위에 덮인 기적의 한글문학” 「文學思想」 77호; 1979. 2.

달리하는 그 위치를 확증하는 셈이 된다.⁹⁾

II. 作品分析

1) 尹塾의 貞敬夫人 李氏祭文

尹塾은 英祖 10년(1733)에 나서 正祖 21년(1797)에 죽은 文臣이다. 그의 字는 汝受, 本貫은 坡平이다. 英祖 37년(1761)에 과거에 급제하여 검열이 되고 이듬해에는 사관으로 入侍하였다. 영조 38년 壬午年(1762) 5월 羅景彥이 사도세가의 죄를 영조에게 알려 바친 사건이 발생하자 영조가 親鞫하게 될 때, 사관의 처지에서 세자의 처형에 반대하였다. 이 때 소극적인 영의정 申晩과 좌의정 洪鳳漢 등의 행동에 분통을 참지 못하고 이들을 비판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미움을 사서 처음에는 海南으로 유배당하고¹⁰⁾, 2년후에 풀렸다가 영조 47년(1771) 7월에 다시 옛날에 샀던 미움이 빌미가 되어 두번째로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되어¹¹⁾, 同王 48년(1772) 2월에 喪配를 당하였어도 전혀 몰랐었다. 짓궂게도 상배당한 3개월 후인 5월 9일에¹²⁾ 放還되어 귀가해서 비로소 알고 3년상을 바치면서 同王 49년(1773) 癸巳 2월 17일에 단장의 비통을 달랠 길이 없어 이 祭文을 지었고¹³⁾ 부인의 기년 제사 때 읊어졌다.

곧 尹塾의 이 祭文은 이러한 그의 명울진 마음의 응어리를 있는 그대로 비쳐 주는 역사적 증언의 구실을 한다.

正祖가 등극하여 元年(1776)에 兵郎, 校理 大司諫, 兵判 등에 累進되었다. 金鎮季와 사이가 좋지 못하여 外職로 나가서 과음으로 인해 失明, 8년간 신음끝에 죽었다. 卒後에 영의정에 贈職됨과 忠肅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尹塾의 「貞敬夫人 李氏祭文」은 전술한 바와 같이 壬午年 思悼世子の 禍로 말미암아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당하여 유배중에 부인이 타계하여 그 부고도 받지도 못하고 유배에서 풀려 돌아와서 부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그 腸斷의 비통을 달랠 길 없었던 정신적 상황 속에서 씌어진 게 바로 이 제문인 것이다. 이 祭文은 부인의 기년 제사 때에 읊어졌다.

아내의 상은 일년 만에 끝내는 것이 당시의 풍속이었다. 그러나 유형수였기에 부인의 初終 葬禮에 한 지아비로 치루지 못한 한을 달래기 위해 3년상을 채우겠다고 고집했는지 모를 일이 다. 그 만큼 부인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지극한 것이었다. 종래의 형식적인 漢文祭文이었다면 불

9) 中宗代 李彥迪이 지은 母夫人 孫氏에 대한 祭文은 漢文祭文 「晦齋集」을 後孫이 번역한 것으로 그것은 완전히 歌辭體를 意譯化한 것이다. 洪在然 「敦大春秋」 5호, 徐元燮 「어문논총」 6호 등의 발췌 참조. 따라서 尹塾과 安敏學의 한글 祭文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10) 「英祖實錄」 38年 壬午 閏5月 丙子條 ‘…上竄命尹塾于海南’

11) 「英祖實錄」 48年, 8月 癸酉條 ‘…塾大靜縣勿限年定配…’

12) 祭文中에 ‘오월구일의 망외의 샤를 어드니’이란 대목이 있다.

13) 祭文의 發語 部分의 ‘제사 이월일이렛날 갑술’이란 干支가 있다.

과 100여字 內外면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貞敬夫人 李氏祭文」은 23張의 내용이 앞뒤 표지가 완전한 채 胡蝶裝으로 28cm의 正方形으로 되어 있다. 1面 18행씩 上下 36행으로 全 1528行 곧 1528句(歌辭式句數)라는 장장한 大作이다. 작품 末尾 側面에 「갑신 삼월일 불초 현손 조형 근장 우안변 임쇼」라 첨기했으니 이와 같이 장정한 것은 甲申年(1884) 3월에 尹塾의 玄孫 祖榮이 安邊 任所에서 한 것이며 따라서 표지에 「정경부인 연안니씨 제문」이라 쓴 것도 장정자가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뒷 표지의 이면에 「이책은 충숙공 친필이신 고로 억만탄에 유전할 귀중품이니 우리 조손들은 무루히 봉독하며 겸허야 상치 안키를 주의하라 무진 이월일 불초 오티손 교창」이라 기술되어 있고 또 앞 표지에 「忠肅公親筆(貞敬夫人 祭文)」이라 밝혀 있으니 戊辰年(1928)에 祖榮의 아들이 加筆한 것이다.¹⁴⁾

本 祭文은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죽음에 대한 애도가 주제인데 大別해서 4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第1段은 이 祭文의 서두라 하겠는데 우선 죽은 부인에 대한 婦德을 기리고 있다.

유세춘 이월열이렛날 갑술 파평윤숙은 숨가 것춘글 혼당으로베 대략 망명 비고혼 경한을 뵈 망실
 녀인 연안 니씨 녀년의 고희느니
 오호!라 유 ○은
 병옥의 지죄오 명개흔 죽질이로다
 일즉 도량이 이시매 ○○○를 거스○○○
 운유하며 용용하야 ○이○도 넘나지 아니하도다
 가인 뼈을 덤복하다니 우리 금과 슬을 엇도다
 진실로 규칙만 의논흔지라 필부의 그릇하미 업도다
 슬프다 내 그대 마즈니 괴스 뉘뉘이로다

己巳年(1749)에 부부가 되고 두 해 만에 장남을 득남하여 기뻐하였는가 하면 壬申年(1752)에 가족이 홍역을 앓았고, 부인이 학질에 고통을 겪었고 아들을 보고 할아버지가 기뻐한 내용, 부인의 내조로 학업을 부지런히 하였음을 회고하고 있다. 乙亥年(1755) 男妹가 병에 걸리고 丁丑年(1757) 세 아희가 병에 걸렸으나 다행히 신령의 도움으로 회복되고 다만 큰 딸이 오래 앓아 누어 늘 가엾게 여겨지던 중이다. 壬午年(1762) 思悼世子の 禍에 英祖가 몸소 친국하게 될 때 世孫(正祖)이 들어 와서 世子 뒤에 었드려 아버지를 살려 달라고 애원하여도 英祖가 화가 나서 강경했다. 史官으로 入待한 尹塾은 世子 處刑을 반대하고 소극적인 영의정 신만과 좌의정 홍봉한들을 비판한 일이 英祖의 노여움을 사서 全羅道 海南으로 流配당하게 된다. 해남으로 유배당하기 전의 집안 사정을 회고한 것인데 가족이 병고에 시달리는 불운하고 어려운 형편이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第2段은 해남으로 유배당하여 두 해 동안의 유배생활 끝에 집에 돌아와 딸의 출산, 장남의 혼인, 아들의 출산, 三女의 죽음, 부친상, 장남 사망과 아들에 대한 회상, 모친상, 부인의 병고 등의 가족의 불우한 상황을 겪었던 것을 회고하였는데 이러한 불우한 상황속에 尹塾은 제주도 대

14) 앞의 註7)의 「前揭書」, p. 127.

정현으로 유배를 당하게 된다.

성쥬 | 위엄을 개이사 설도천국을 거두시니
 텅○희남의 편비로 도류하시니
 하늘을 우리어 감읍하야 성은갑기를 심각하도다.
 머리를 도로혀 북으로 브라니 그터를 맞나미 썩 이시리도다.
 염천한당의 아홉번 구러지고 열번 너머지도다.
 겨요 누소의 이르러 편지를 도라가는 사롬의 브치도다.
 시비빅단이나 하니 남녘 빅성되기를 달게 너기도다.

 간초하고 근심호미 두희의 구름 가러기 망창하도다.
 엇지 도흔바 덕택이 마른 흙의 밋츄를 괴약하여시리오.

제1차로 전라도 해남으로 유배당하였을 때 심정을 표백한 것으로 遠惡地島配를 당하리라 생각하던 것이 海南으로 유배당하게 된 것은 오로지 聖恩에 있다고 감사해 한다.

是非가 많은 당쟁에서 벗어나 유배지에서 한 백성이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시달리며 근심 속에 보낸 두 해 동안의 유배생활은 마치 좋은 비 덕택으로 마른 흙에 미침을 뜻한다고 하겠다.

내 과연히 세상을 낮고 그터 또흔 불스를 권하도다.

 몸이 한가하고 마음이 평안하니 뉘문을 브리 아니하도다.
 아춤의 고기잡고 저무매 낙시하니 기리 통발과 낙시새를 안앗도다.
 산옹과 슈키이 서로 바회와 반석의 맛논도다.

 혹 서울말을 던하면 귀를 가리우고 듣지 아니 하도다.

해남 유배에서 放釋된 후의 尹塾의 심정을 표백한 것으로, 다시는 出仕를 아니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벼슬길에 나서면 반드시 유배를 당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상황이니 다시 부귀공명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尹塾 자신의 생각이지만 부인의 진정한 바램이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어찌다 서울 말을 전하면 귀를 가리우고 듣지 아니하겠다는 심정은 바로 유배당한 사람이면 한번쯤은 생각해 보는 자세인 것이다.

일즉 희남 덕거의 이실재 명복의게 덤을 므르도다.
 큰○희 신명을 므르니 큰그르시 만가지 다 길하도 하도다.
 오직 나무드리를 썩리니 스를던의 피하미 맛당타 하도다.

 허물며 괴질이 아서 빌의 두후로부터 하도다.

적로 뉴혈을 내매 내 상히 민망 넘너호는지라
경영호야 경거호매 아희와 더브러 서로 의논호도다.

.....
좁간 조치를 두매 당춧 신네를 힘호려 호도다.
이듬히 중춘의 날을 갈희고 패빅을 밧도다.

유배에서 풀린 후 세째 딸과 네째 아들 출산이란 경사가 잇달았으나 丙戌年(1766)에 세째 딸이 네살에 병으로 죽는 불운을 겪는다.

장남의 몸이 쇠약한 지 늘 안스러이 염려하여 유배 생활 중에도 걱정된 尹塾은 이름난 점장이에게 점을 쳐 본다. 아이는 운수는 큰 그릇이 만가지 다 좋으나 오직 나무다리를 꺼리니 스무살 전에 피함이 마땅하다고 듣고 유배에서 풀린 후 아내와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丁亥年(1767)에 혼례를 올린다. 기쁨은 순간적인 것이었다. 아들의 혼사를 지낸 3개월 후에 尹塾은 부친상을 당하는 불운을 겪는다. 내 무슨 죄악을 쌓아 위로 하늘의 노여움을 입었느냐고 자탄한다. 이러한 불운은 실로 엄청난 불운이 계속되는데 불과 17세 밖에 안된 장남의 죽음이 그것이다.

아들은 붓들고 며느리는 안아 호 경영호며 호 구완호도다.
급훈 그별이 니어 일으매 뉘 견더여 안주호리오
겨요 성복을 지내매 그더 몬져 급히 도라가도다.
9희 임의 노덜호야 어미를 브라고 느려 오노도다.
홍쥬원 시냇버들의 어미 주근 즈식을 맛다도다.
관을 안고 혼절호니 심간이 쓰여지고 가슴이 막히도다.
날빛치 창연호고 구름이 근심호니 힘노 | 괴운이 삭연호도다.
나호 녀축의 이시매 망연히 드러 아지 못호도다.

어떻게 숨 돌이킬 수 없이 급한 사정이 잇달아 일어나는 실로 비극의 연속이다.

9월 과거에 아들을 위해 차비를 차려주고, 푸른 옷 빠른 나귀 위에 일곱 자 키가 흰출한 것을 뒤에서 바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아비가 젊어서 오르던 과거를 아들도 또 그 자취를 이룰 것으로 믿었는데 병은 나를 가만히 속였다고 자탄하며 아들에 대한 회상을 하였다. 아들이 죽자 연강에 몸을 던져 물에 잠기려 하나 그렇지도 못하여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으나 설움은 이미 지나치게 큰지라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시시로 정신 잃고 누울 정도로 상심은 컸었다. 그런 가운데 尹塾은 모친상을 당하는 것이니 불운의 연속은 절정에 달한 셈이다.

급훈 그별이 홀연이 오니 놀나 니러나다가 다시 업더지도다.

.....
문의 드러가 병후를 슬피니 혼슈호고 범도물 일토다.
이순을 도호호매 눈이 멀게 되고 업드러지호도다.
중후 | 날로 둥호시니 가슴을 두두리매 뜨슴말을 호리오
.....
칠월은 나의 원슈 |라 못춤내 큰셔름을 만나도다.

불운은 그 한계가 없는 것인지 尹塾에게 직면한 불운은 거듭된 불운을 낳는 실로 인간바극이었다. 딸, 부친, 아들 등의 죽음 뒤에 모친상을 당하는 불운은 실로 그의 표현대로 원수와도 같은 것이었다.

염턴 원지의 념습 오솔 뉘 도을고
 턱힘으로 군즈를 만나 포복하야 겨 구를 다스리도다.
 집이 혼갓 내벽뿐이라 창졸의 변을 만나도다.
 승미 문화를 머리 썩력을 줌고 친히 판출하도다.
 힘이 진하고 세 박하매 그덕 분곡도 못하도다.
 겨요 성복을 지내매 내병이 또 극독하도다.

집안이 가난하여 또 계속된 불운을 처리하고 난 후라 기진하여 모친의 염습옷을 마련한다는 것도 걱정거리다. 부인이 머리칼을 잡혀 한되쌀, 한푼돈을 몸소 마련하게 되니 부인도 연달은 슬픔에 곡도 앓을 정도다. 尹塾은 이런 불운속에 힘이 다하고 기운이 쓰러지매 병만 크게 도져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기 어렵게 된다. 辛卯年(1771) 7월 5일에 병에 걸려 홀로 누웠더니 나졸들이 와서 다시 壬午年(1762)의 일로 샀던 미움이 발미가 되어 제2차로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된다.

第3段은 壬午年에 思悼世子の 禍에 세자의 처형을 반대하고 대신들을 叱責한 것이 두번 다시 벌미가 되어 영조의 노여움을 사서 제주도 대정현으로 유배당하여 유배지로 가는 과정, 항해의 어려움 등을 표백하였다.

문을 여러보매 데졸이 밧기 잇도다.
 손의 내 성명을 써 울호며 그름을 문노도다.
 일으되 내 대정명백하매 쓰히 남두를 보노도다.
 이의 지은 죄 업논지라 일쫓출 아지뫓하도다.
 지계를 겨요 널리 열고 안희 말을 던하도다.
 그덕 놀나 낮빚출 일허 불을 벗고와 연고를 못도다.
 눈물이 니어 느리매 원집이 다 죽게 하리로다 하노다.

대정현 유배를 당한 尹塾과 부인의 놀란 동정이 표현되어 있다. 해남 유배를 끝나 앞서 지은 죄가 없는지라 실로 일 끝을 알지 못할 일이었다. 집안의 계속된 불운에 시달리고 있는 중에 그것도 윤숙 자신은 병중의 몸인데도 대정현으로 유배당한다는 것은 온 집을 다 죽게 하는 비극적 상황이었다. 한번 나서 죽기를 겁냄이 아니라 애꿎은 판자를 한스러워 해야 할지가 의문인 것이다.

턴위 진첩하야 금일늬의 감을 건느라 하시도다.
 니어 선턴관이 이서 히류하를 형출혼다 하도다.
 미쳐 사당의 하직디 못하고 망즈를 영격치 못하도다.
 선성 빅니의 도라브라매 가슴이 막히도다.

예회하고 도보호야 힘호매 으즈 | 뒤흠 썩르도다.
겨요 똥문을 나매 그터 우논 소릭 밧과 들니이논도다.
촌당이 배이논 뜻호되 밧음을 츠마 티연흠 갖도다.

나출들이 發配를 재촉하는 말에 임금의 노여움이 겹으로 쌓여 오늘 안에 한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고 또 선전관이 꾸물거리면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먼길 떠남에 사당에 하직하고 죽은 아들과도 이별을 나누지 못하는 긴박속에 유배길에 나선다. 아이가 뒤따르는가 하면 부인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태연한 채 길을 나서나 그야말로 일촌간장이 버히는 듯한 심정이다.

내 이찌 멀리 가니 양네를 아직 기다리라 호도다.
아들이 내 것희 누어시니 몸을 이르만더 경계를 다시 호도다.
네 모친과 수씨 밧들름 내 이실 적갓치 호라 호도다.

.....
두밤을 지내고 길흠 썩나니 으즈 | 썩르며 우논도다.
량위 이를 보매 나문 간당이 언마나 호리오
손을 들너 가기를 비야매 가 네 모친을 위로호라 호도다.
내 이제 멀리 가니 장스지닐 계교 | 업도다.
형의 상식을 너어 신녕이 주리게 말라 호도다.

유배가는 도중 陪行한 아들에게 家間事를 당부하였다. 모친상중에 유배당한 것이다. 장례를 기다렸다 치르라는 당부와 어머니와 형수를 잘 받들고 형의 상식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모친상 중인데도 유배를 당한 것으로 봐 조선조의 당쟁과 관계있는 유형은 형벌의 집행에 있어 법의 고리를 떠나 정적 세거의 한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츨 망일의 압호로 부안 이르도다.
원식이 낮 갓트니 병을 붓들너 경낙을 브라도다.
.....
친상이 빈소의 이시니 뉘 구홀호며 뉘 슬허호리오
병든 안희와 외로운 아희들이 뉘게 의지호며 뉘 머기리오
눈물 뿌리고 지계의 의지호니 흰 이슬이 오시 짓논도다.

유배가는 도중 8월 보름에 扶安에 이르러 귀양살이 기별을 듣자 屈原처럼 자결할 심정도 먹었지만 어머니의 관이 빈소에 있고 병든 아내와 외로운 아이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결행할 수 없어 지체문에 기대어 눈물을 뿌리며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자탄해 본다.

尹勳은 8월 보름에 부안에 이르러 부인에게 만 갈래, 슬픈 사연의 편지를 썼고 8월 20일에 영암에 이르러 편지 한장을 전했다.

흔 편지 일턴 줄이라 가스 | 녀녀호도다.
 명신을 모호고 믿음을 가다듬어 쓴 후 다시 쓰도다.

尹塾이 훗날 부인을 위해 長詩形의 祭文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편지를 쓰되 일천 줄이나 길게 썼던 力量이 그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尹塾은 부인에 대한 정성도 보통이 아니었다. 유배지 제주도에 입도하기 전까지 부인에게 쓴 편지가 5통이나 된다. 한편에 <편지>란 어휘가 11회가 나타날 정도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유배가는 도중인데 부인의 병든 마음을 위로코자 물건을 바꾸어 보낼 정도이다. 그런데尹塾 본인은 發配時에도 병든 몸이었는데 영암에서 병을 열흘간 조리하고 해남에서 닷새동안 병든 몸이 된다.

도동의 향호로부터 심기 더욱 효혜호도다.
 통박의 빌미흔 바의 빅병이 모다 발호도다.
 우호로 토호고 둥간이 막히매 스스로 브러져 아지 못호도다.
 병든 지 오일의 인귀를 분변치 못호도다.

병약한 몸이었지만 유배당해 가는 몸이고 백가지 병이 모두 나타나게 마련이었다. 그렇게 병든 5일은 사람인지 귀신인지 가릴 수 없을 정도였다.

10월 10일에 배를 타고 제주로 향했으나 바람이 세어 배를 멈추게 하여

안네 던에는 밍세호야 바다를 건너지 아니호랴 호도다.
 지리히 두들의 믿음에 싸고 기운이 더상호도다.
 바다를 건너미 압회 이시니 슬푸물 춤고 우지 아니호도다.
 가서 | 혼결갓치 막히니 삼성이 격흠갓도다.
 스상 존물이 문득 스삭을 격호도다.

모친 장례전에 제주도로 향하지 않기로 맹세하여 마음이 타고 기운이 꺾이는 2개월간을 지낸다. 집에서 오는 편지가 막히니 마치 백년의 강물이 흐른 것처럼 생사가 허무해 보인다. 여기서 조선조 유형이 유형수가 유배지로 가는 도중 모친상을 당하면 그 장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유배가는 중간지에서 장기 체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엇지 십원의 이의 폼네 지닌 주를 알아시리오
 그척의 아지 못호고 스스로 평인 호도다.
 즈식이 어버히를 장치못호니 불효 | 크도다.
 복을 브라고 업더지니 텃지 어둡고 어둡도다.
 즈의 죄 관영호니 죽지 아니호고 므습호리오

원역을 머금고 절치하야 사라 못당히 면네를 지내리로다.

드디어 모친의 장례를 치룬 소식을 인편의 서신에 의해 확인하여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지 못한 것을 자탄한다. 이어 부인을 위해 인편 편지와 물고기를 보내 위로하나 부인의 병이 깊다는 사실을 답서 받고 또 편지로 제주로 가면 살아 건너기를 어찌 기약하겠는가고 자탄하면서 부인에게 가간사를 부탁하고 약먹기를 자주하도록 당부하여 동짓달 열아흐레를 바닷배를 탄다. 해로가 순탄치가 않다.

물결이 노하고 구름이 어둡도다.
 비나를 지나지 못하야 푸른 물결이 하늘의 다향도다.
 잠간 스이의 돛치 쓰여지고 비 기우러지느도다.
 물결이 소소고 밤이 어두오니 지척을 분변치 못홀노다.
 좌편 물은 우편을 지나고 암물결은 뒤홀 넘느도다.
 사름이 다 귀신의 얼굴이라. 손을 묵고 파하기를 기다리도다.

해남을 떠나 보길도, 목섬을 향하는 도중의 해로가 물결이 사나워 순탄치 않아 바람을 피하기도 하여 세번째로 배를 타서 추자도에 향하여 날이면 날마다 바다를 탔으나 해로가 순탄치 않아 되돌아 오기도 하였다. 또 날이 밝아

날이 저월 그믐이로다 영취산이 브람의 드도다.

 거문 밤이 망망하니 서동을 분변치 못홀노라

 삭풍이 세를 펴하니 바다소릭 귀를 놀내느도다.

 급히 노역을 베퍼 연망히 포구의 드도다.
 대풍이 뒤홀 조츠니 우설이 오솔 짓느도다.
 낭귀하야 비의 느리매 급히 촌인의 향하도다.
 도로혀 바다물결을 브라보니 만니의 하늘에 다향도다.
 둥뉴하야 이를 만나던들 편각의 반드시 업칠났다.

실로 어려운 항해 끝에 제주에 入島하였다. 7월에 발배하여 11월말이고 보니 5개월간에 걸쳐서 유배 여정을 밟은 셈이다. 바다 물결이 만리의 하늘에 닿을 듯한 대풍을 만나 실로 사경을 넘어서 여정이었다. 제주 보성에 도착하자 먼저와 있는 부인의 편지를 받아보고

가만히 그더 병을 헤아리매 반드시 도치 못하매 이를미로다.
 회포를 멍치 못하매 일빅 슬프미 서로 모히눗다.

마음에 서린 한을 억제치 못하여 온갖 슬픔에 사로 잡혀 사탄하여 버린다. 세주에 들어온 후는 어머니 돌아감에 자식도리 못한 설움에 조석으로 곡하기도 한다. 그런 효심은 세주의 녹산불인 꿀을 보고도 제전의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한달만에 공들여 일천줄이나 되는 편지를 써서 부부가 살아서 만나기로 위로한다. 이어 최종 목적지인 대정현에 가서 적소를 정한다.

내 대명을 향도다.

상술이 습풀이 눈속의 푸르니 눈물을 뿌리고 병을 붓드렷도다.

거촌 새의 외붙이어 돌이 어즈럽고 길히 위턱도다.

쥬인을 명해야 거향매 먹음이 어즈러운 실 갖도다.

낮출 빠고 빗겨 업드러더시니 성이 묘연도다.

대정현으로 가는 과정과 적소를 정하여 살기로 작정하니 마음이 어지럽고 살 길이 묘연하여 자탄한다.

흔흔야 야반의 구돌이 타는 줄을 깨닫지 못도다.

독혼 너 칠규의 드니 문져 명신을 잃도다.

홀지의 놀나 니러나니 불이 방충의 창일도다.

급히 겹사롬을 츠 개오며 너를 마셔 슬피지 못도다.

지계를 열고 물을 부우니 화괴 저기 그치도다.

등준을 붉키고 이에 보니 의금이 타기름 다도다.

유배생활에서 온돌의 과열로 해서 화재가 날 뻔했던 그 어려움을 표백하였다. 하마터면 유배지 적소에서 불에 타 죽을 뻔했던 불상사였다. 이러한 일 있는 다음 정월 보름날에 상서롭지 못한 악몽을 꾸어 급히 부인에게 편지를 부쳤고, 또 이월 보름 뒤에 악몽을 꾀다. 악몽을 연속으로 꾀다.

동춘망후의 꿈의 그터를 만나도다.

우리 본집이 아니라 궁중초 초사 이로다.

하늘비출 보지 못하니 고향 방해 잇도다.

그터 홀연 압홀 지나니 옷과 장속이 상회와 드르도다.

몸이 가피야와 나는 듯하니 표홀야 니괴지 못홀 듯도다.

내 말노 그터드려 모르되 〇희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노고

듀져야 답지 아니 하고 망홀흔 스이의 숨어 피도다.

틀림없이 부인이 타계한 것 같은 불길한 흉몽이라 여겨 부인과 며느리에게 편지를 부쳐 각별히 며느리에겐 너의 시어머니가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지라 네 앞에 편지를 부치니 만일에 아직

삼아게시거든 너가 읽어드리고 이미 세상을 버렸거든 편지를 영전에 올리라고 당부한다. 3월 초순에 2월 초에 쓴 며느리의 편지를 받고 부인의 병환이 위급함을 알게 된다. 그러한 불안하고 암담한 분위기 속에서도 3월 열나흘날 만아들의 죽은 날 유배지에서 대상을 지낸다. 4월 초순에도 부인의 운명을 점친다. 4월 26일에 인편에 부인의 부고를 받았는데 2월 17일에 타계한 것이다.

이월 십칠의 그덕 이에 세상을 버리도다.

좌로 9회 손잡고 우로 며느리 팔을 붓도다.
내 명도 | 이의 극히 흉흉여 먼저 당즈를 일토다.
너희 업진을 보지 못하고 또 이에 일오도다.
혼이 만일 아롬이 이시면 구원의 눈을 감지 못허리로다.
네희 업진이 분터 약흔지라 또 병이 훑타 허니
만일 이 괴별 드르면 반드시 보던치 못홀지라
상스를 괴이고 던치 마라 반드시 샤로 도라오기를 기도리라
비록 십년이 지나도 샤편에 던치 말라.

이러한 유언에 따라 장사를 지내고 비로소 전한다는 글 내용인데, 이 글을 읽고 尹塾은 한 지아비로서 아내의 임종을 가까이하지 못한 원한에 눈물을 얼마나 뿌렸을까 쉬 짐작하게 한다. 그 원한에 가득찬 자탄을 다음과 같이 표백하였다.

그터는 비록 망호물 괴이나 나는 먼저 믿음의 알앗도다.
바다흔 브라고 혼번 통곡함애 일빅 원역이 가슴의 모히도다.
약년의 서로 만나 일만 간고를 혼가지로 지나도다.
겨요 혼 과거를 어드매 경스 | 아니라 도로혀 원슈 |로다.
여러번 춤적을 보매 약질이 스스로 사라지도다.
임년이후로 날을 권 허야 벼슬 말나 허도다.
간난이 또 혼 상스 |라 혼가지로 히노나 괴약허도다.
경년이래로 세간의 쓰지 업도다.
내 후 말로 위로 허야 굿희여 스스로 단촉지 말나 허도다.
나와 그덕 오라지 아니 허야

우호로 부모씨 뵈옵고 아력으로 모둔 망야를 만나리도다.

죽는 재 다 명이로터 그터는 횡수의 뇨덜홈 쫓도다.

부인의 죽음에 대하여 비통해 하며 임오년의 사도세자로 인해 해남으로 유배당하고 석방후 부인의 말대로 벼슬을 앗고 부부간 한가지로 함께 늙어가며 사후엔 부모와 亡兒를 만나기로 기

약했었는데 어찌서 부인이 먼저 돌아가는가 생각할수록 슬픔이 끝없다고 자탄한다.

창창흔 하늘이 불인 흠이 이 또도다.
 줌음이 병이 더하니 혼식이 날로 더 호도다.
 멀니 어릿것들을 생각하니 어미를 부르고 의지 업도다.
 믿음 스스로 억식하니 이명이 엇지 이러트시 박호노
 히를 예서 지내면 만일에 슬리 업도다.
 내 주근들 뉘 거두며 내 혼이 어되로 도라갈고

부인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자탄이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 하늘이 어질지 못함을 원망하여 특명한 것이 극심하다 하여 자신의 운명이 어찌 이렇듯이 박한가고 자탄하고 있다.

그더 글시를 슈슈호매 거요 닷당이 초도다.
 계독의 김피 감초매 당초 아희들의게 셔치랴 호미로다.

부인은 죽어 이 세상에 없지만 부인의 편지는 남아 있어 장차 아이들에게 남겨주려 정리해 보는데 이는 부인의 편지에서 부인의 체온을 재음미하며 그리움에 젖고 있다고나 할까.

제4단은 結詞에 해당하는 것인데 대정현 유배에 放釋되어 귀기하여 부인의 3년상을 맞아 제문을 올려 새삼 부인을 그리며 애도하였다.

오월의 구일의 망외의 샤를 어드니

 이튼날 일 제쨌로 향호야 인호야 하포코져 호더니
 이의 엄당을 만나니 연흥과 평슈 또도다.

 또 턴위를 만나도다
 니락을 업슈호매
 믿음이 즐고 해오로매 일일이 삼지 갓도다.

放釋의 습이 내리자 제주로 향하여 出陸하려 했으나 날씨 관계로 7일간 머물게 되매 하루가 3년과 같다고 표백하고 있다. 방석되어 7일이나 날씨 때문에 잠시 머물게 된 것을 이렇게 지루하게 여겼을 때 유배생활의 나날은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하였을까는 쉬 짐작된다. 이어 제주를 떠나 陸地에 닿았다. 그 순간의 심정을 내가 무슨 낱으로 돌아가 영전에 울며, 어머님이 무덤에 감추어지니 돌아가 절하올 땅이 없고 유배갈 때 살았던 아내가 죽어서 목주가 되었고 아들은 이미 3년상을 지냈으니 심회만 어지럽다고 표출하였다. 이어 6월 16일에 처가에 이른다.

슬프다 금일의 군을 어다 봄가
 우리 쏘은 어되 가고 군을 보지 못호호노

넷 허남으로 올적은 쏘이 이서 혼가지로 짓거허더니
이제 남똥으로브터 오매 신념이 엇지 알리오

.....
내 목메어 터담지 못함애 다만 눈물만 나리우도다.

.....
다시 암뉘흔 브라보니 세 아회 무덤이 누누호도다.
사라 엄의 슬하를 썬나고 주그매 엄의 뉘와 드르도다.
당부의 강흔 이 스스로 녹는 줄을 썬닷지 못홀로다.

처부모가 방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한편 딸이 함께 기뻐할 수 없음을 서러워함에 윤숙은 혈
루를 뿌려 탄식하고, 처가집 앞산에 있는 세 아이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살아서 어미 슬하를 떠
나고 죽어서 어미 무덤과 다름에 腸斷의 자탄을 표백하고 있다.

가족을 재회하자 모두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 한다. 영전에 들어 곡을 하며

넷 내 갈 썬를 생각허니 그터 지게 암뉘서 우더니
이제 내 이의 오매 그터 어드로 도라간요
사라셔 니별호야 주그매 도라오니 혼 조각 나무신쥬로다.

이어서 부인의 무덤에 가서 울면서

가던 날 손 사름이 어이베 여의 못쳤논고
이제 내 와 보니 굳이 능히 알오미 잇는가
기리 슬픔과 설우물 넋고 깊피 혼 우흔 흠의 감초엿도다.
사라셔 서로 생각허더니 도라오매 놀노 더브러 의뢰허리오

부인을 그리어 통곡하며 새벽 되어 두견의 울음을 들으며 애끓는다. 홀로 찬방에 누으면 반신
반의 속에 꿈꾸다 깨어

나무 그림자 지게의 당함애 의심컨댄 그터 오는 듯호도다.
브람넝피 혹 움죽이매 그터 소리를 듣는 듯호도다.

부인이 살아서 찾아오는 착각에 사로 잡힌다. 부인의 3년상이 되자

세희를 경영호야 혼귀를 짓지 못호도다.
이제 그터를 위호야 당황이 이를 지으니
이성의 친이 던속의 밋지 못홀인가

부인을 위하여 祭文을 지음이 부부 사이의 가까움에 혈육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아내의 장

사를 일년상에 그치는 게 통례이나 부부간에 남은 한이 하늘과 땅 사이에 더욱 간절하여 3년상을 한다고 표백하였다. 끝으로

오직 원하느니 그대 신녕은 내집을 보던 하게 도와
 능히 외로운 아들로 하여금 시러곰 성념하게 하고
 다시 모든 은혜들을 도와 병 업시 양술하게 하리로다.

부인의 신령이 집안을 가호하길 빌며

그대 도라가고 내 홀노 이시니 이성에 못어시 즐거우리오
 다만 도라갈 날을 기다려 그대더 더불어 영묘를 혼가지로 하리로다.
 신녕이 그이를 드를가 실노 내 불덩이로다.

생을 마쳐 저승에서 부인과 함께 하고 싶고 허무 감정에 젖는다.

2) 金正喜의 夫人禮安李氏哀逝文

秋史가 유배지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생활중 壬寅年(1842) 11월 乙巳朔 13일 丁巳에 부인 禮安李氏가 타계했는데 이듬해 정월 乙亥朔 己丑에 訃告를 받았다. 이는 그가 유배당한 지 2年餘日이 되는 날이었다. 秋史의 流配諺簡 9통 속에 부인의 병환을 걱정한 내용이 9회나 빠짐없이 표출되어 있음을 볼 때, 부인은 평소 병약했고, 그것이 秋史가 유배당하게 되자 더욱 악화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부인의 타계는 秋史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다. 곧 亡妻의 임종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없었고, 流刑囚이기에 그 亡妻의 初終 葬禮를 한 지아비로서 치루지 못한, 괴롭고 원통한 눈물을 뿌린 슬픈 심사는 그 충격으로 해서 비통한 정감이 짙게 점철되어 있다.

이런 비통한 심사는 전술한 바 있는 上從兄 教喜에게 보낸 서한 속에서 ‘從弟積咎積殃 又及於無辜之室人 千里海上 訃車忽至 驚越震動 猶屬第二 近四十年 辟合之重 猶屬私情’¹⁵⁾이라 표백하고 있다.

이런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秋史는 流刑囚의 몸이면서도 상복을 갖추고 통곡하여 「夫人禮安李氏哀逝文」을 썼는데, 이는 流配漢文祭文으로 亡妻에 대한 哀逝와 喪妻를 입은 애절, 비통한 심적 상황을 산문으로 표백한 것이다.

壬寅十一月乙巳朔十三日丁巳 夫人示終禮山之楸舍 粵一月乙亥朔十五日己丑夕 始傳訃到海上 夫金正喜 具位哭之 (阮堂先生全集 卷7)

(壬寅年 11월 乙巳朔 13일 丁巳에 부인이 예산의 묘막에서 임종하였으나 이듬해 정월 乙亥朔 15일 己丑 저녁에야 비로소 부고가 바다 건너 유배지로 전해져서 남편 김정희는 상복을 갖추고 슬피 통곡하였다.)

15) 「阮堂先生全集」 卷2, 上從兄 教喜氏(2).

流配祭文「夫人禮安李氏哀逝文」의 서두이다. 부인의 부고를 2개월이 지나서야 받은 사정으로 봐 유배지 제주도가 遠惡地임을 쉬 짐작케 한다. 그런 사정도 전혀 모르고 한결같이 秋史는 부인의 병환을 걱정하여 부인의 死後 하루 뒤와 5日 뒤에도 諺簡을¹⁶⁾ 2통이나 써서 부친 바가 있는데 실로 기막히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慘生離而死別 感永逝之莫追 綴數行文 寄與家中 文到之日 因其饋奠 而告之靈几之前 曰嗟嗟乎 吾術場在前 嶺海隨後 而未嘗動吾心也 今於一婦之喪也 驚越遁剝 無以把捉其心 此曷故焉 (前掲書)

(살다시피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진 것을 슬퍼하고 영원히 간 길을 좇을 수 없으니 배에 사무쳐서 몇 줄 글을 지어 집으로 보내노라. 국이 도착하는 날 그 케전에 인연해서 영계 앞에 고할 것이다. 가로되 아아, 육에 갈라진 일이 앞에 있고 산과 바다가 뒤따랐으나, 아직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한낱 아내의 죽음에 놀라 가슴이 무너져서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없으니 이 어인 까닭인가.)

死生은 有命이다. 인생 백년을 함께 동고동락 해로하다가 死別하여 한 사람만의 隻影이 남아 있게 될 때 그 얼마나 고독의 비애를 통감할 것이겠는가. 恤鰥寡孤獨 바로 그것이다. 하물며 ‘吾術場在前 嶺海隨後’의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流刑囚의 몸으로 지내던 중 아내가 타계하여 ‘慘生離而死別’ 한다는 것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인의 죽음에 가슴이 무너져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해 하는 秋史의 비통한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祭文은 死者를 슬퍼하며 그의 명복을 빌며 쓴 挽書라 하겠다. 中國의 文選엔 詩의 類別로 挽歌의 항목을 세우고 이것을 挽歌詩라고도 하는가 하면 日本에서는 萬葉集의 三大部門의 하나로 挽歌가 있는데,¹⁷⁾ 우리 나라에선 그런 유형이 정립되지 않았던 성싶다.

그리스에서도 哀歌는 그 원시적인 前藝術的인 형식으로 여자들에 의해 노래가 불리어졌다.¹⁸⁾ 또 남태평양의 섬들에서도 葬儀에 있어서 여성은 큰 역할을 했고 哀歌를 노래하거나 극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여성의 의무였었다.¹⁹⁾

이처럼 死者 儀禮와 직결된 挽歌, 挽歌詩의 문학형식은 원시에서부터 고대에 걸쳐 보다 넓은 세계성을 지녔다.²⁰⁾ 물론 민족에 의한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祭文은 발달했으나 文體分類上 挽歌, 挽歌詩의 발달은 없었던 느낌이다.²¹⁾

祭文은 儒家에서는 엄격한 형식이 있었다. 그러나 秋史의 것은 그러한 종래의 형식을 벗어나서 쓴 제문이라 하겠다.

그런 예가 바로 ‘綴數行文 寄與家中 文到之日 因其饋奠 而告之靈几之前’이라 하겠다. 비교적

16) 秋史의 諺簡 제8신 (임인지월 십사일 상장)과 제9신 (임인지월 십팔일 상장) 참조

17) 西郷信綱 「詩の發生」, 日本未來社, 1978. p. 128.

18) トムソン・池田薫譯 「ギリシヤ古代社會研究」 下卷. p. 233.

19) マリノウスキ, 「未開人の性生活」 (泉・浦生譯) p. 30.

20) 西郷信綱, 「前掲書」, p. 135.

21) 李奎報(1168-1241)의 「東國李相國集」 李樞(1328-1396)의 「牧庵詩文集」 徐居正(1420-1488)의 「東文選」, 李退溪(1501-1507)의 「退溪文集」, 許筠(1569-1618)의 「惺所覆韻稿」 등의 文選을 보면 그 文體分類 항목에 있으나 詩類인 挽歌, 挽歌詩는 없다.

산문형식으로 자유자재로 썼다는 점이다. 그리고 文頭, 文中, 文末의 形式句가 없다.

嗟嗟乎 凡人之皆有死 以不可有死而死焉 故死而含至悲 茹奇冤 將噴以爲虹 結而爲靄 有足以動夫子心 有甚於桁楊乎 嶺海乎 (前揭書).

(아아, 대체로 사람마다 모두 죽음이 있거늘 혼자 부인만이 죽음이 있지 않을 수 있으리오만 죽을 수 없는데 죽은 까닭으로 죽어서 지극한 슬픔을 품게 되는 것이고 기막힌 원한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장차 뿜어내면 무지개요, 맺히면 우박이 될 것이므로 죽어 孔夫자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어, 귀양살이하는 것보다 더 심하고, 산과 바다 보다도 한결 심함이 있는가 보다.)

秋史의 亡妻에 대한 哀號가 그 절정을 이루고 표백된 대목이다. 그 중 ‘故死而含至悲 茹奇冤 將噴以爲虹 結而爲靄’²²⁾의 표현은 우리 古典詩歌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곧

- 노가디고 식어지여 萬丈松이 되어이서 (萬憤歌)
- 출하리 식어디여 落月이나 되어이서 (續美人曲)
-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리 되오리라 (思美人曲)
- 차라리 식어저 구름이나 되어이서 (別思美人曲)

등등의 發想法과 유사하다. 다르다면 秋史의 경우는 ‘物’을 접촉하여 ‘情’을 일으킨 ‘興’으로 감동한 표현이라면 梅溪·松江·北軒의 경우는 ‘物’을 서술하고 ‘情’을 의탁하여 ‘比’한 표현이라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嗟嗟乎 三十年孝德 宗黨稱之 以至朋舊外人 皆無不感誦之 然人道常而夫人所不肯受者也 然俾也可忘 (前揭書)

(아아, 30년동안 효덕을 쌓아서 친척들이 칭송했고, 친구와 관계없는 남들에 이르기까지도 감격해서 칭찬치 않는 사람이 없었지만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 하여 부인은 칭찬 받기를 즐겨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대로 잊을 수 있겠는가.)

한 집안의 家道를 떨어뜨리지 않고, 30년 孝德을 쌓아 생을 마친 亡妻의 婦德을 기리며, 그럴수록 부인의 사람됨이 새로워 그림고 잊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昔嘗戲言 夫人若死 不如吾之先死 反復勝焉 夫人大驚 此言之出此口 直欲掩耳遠去 而不欲聞也 此固世俗婦女 所大忌者 其實狀有如是者 吾言不盡出於戲也 今竟夫人先死焉 (前揭書)

22) 金耀燮, “무지개 詩人 秋史” 「文學思想」 119호, 1982. 9. p. 218. 「그래서 기막힌 원한을 장차 뿜어내면 무지개가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추사의 시론이라고 생각해 왔다. 슬픔의 극을 무지개로 형상화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의 애통은 바로 시적 인식이기 때문이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筆者는 古典詩歌의 脈略으로 볼 수 있는 發想法의 一端으로 보고 싶다.

(예전에 일찌기 장난으로 말하되 부인이 만약 죽으려면 나보다 먼저 죽는 것만 못할 것이니 그래야 도리어 더 좋을 것이라 하면 부인은 크게 놀라며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곧 귀를 막고 멀리 피하여 듣지 않으려고 했었다. 이는 진실로 세간의 부녀자들이 크게 싫어하는 것이나 그 실상은 이런 것이니, 내 말은 끝까지 장난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마침 내 부인이 앞서 죽었구나.)

秋史가 부인의 생시에 ‘夫人若死 不如吾之先死 反復勝焉’이라 戲言한 바 있었는데 그것이 장난이 아닌 실제로 부인이 먼저 돌아갔음을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다.

죽음을 입밖에 표현한다는 것은 불吉한 예언이라는 俗信이 있듯이 그러한 戲言을 매우 싫어하던 부인이 자연의 섭리에 따라 죽어갔는데 遠惡地 絶島安置로 있는 지아비를 임종시 가까에서 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정녕 腸斷의 恨을 가슴에 품어 타계했을 것이다. 이어 結尾에

先死之有何快足 使吾兩目 鰥鰥獨生 碧海長天 恨無窮已 (前揭書)

(먼저 죽은게 무엇이 시원했겠는가, 내 두 눈으로 홀아비가 되어 홀로 사는걸 보게 할 뿐이니 푸른 바다 넓은 하늘에 한스러움만 끝없이 사무치리.)

絶海孤島의 遠惡地 제주도 대정현에서 유배생활 중 喪妻를 입은 流刑囚로서 鰥寡存孤獨의 실로 착잡한 심정을 푸른 바다 넓은 하늘에 한스러움만 끝없이 사무친다고 바로 그것임을 토로하고 있다.

上從兄 教喜에게 보낸 서한 속에서 ‘鰥鰥獨生 欲效於後死之責 而不可得 是豈生在世間事耶’²³⁾라고 하여 자탄하고 있다.

이런 심정을 秋史는 「配所輓妻喪」에서 내세에 부부가 서로 바꿔 태어나서 내가 죽고 그때가 살아서 나의 이 鰥寡存孤獨을 그때가 한번 체험했으면 하고 부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정감을 표출하고 있다.

Ⅲ. 結 論

이상 濟州 流配祭文인 尹塾의 「貞敬夫人 李氏祭文」과 金正喜의 「夫人禮安李氏哀逝文」을 고찰한 바 다음과 같이 그 결론을 요약할 수 있다. 곧 祭文이 갖는 國文學的 價値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종래 한글 祭文은 여성이 지어 閨房歌辭로 취급되었으나, 尹塾의 「貞敬夫人 李氏祭文」은 士大夫가 지은 한글 祭文이고 가사 형식이 아닌 漢詩譯語體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이 祭文은 종래의 국문학의 어떤 유형에도 들지 않는 특이한 작품이다.

둘째, 祭文의 대상이 바로 祭文을 쓴 士大夫의 아내이고 한지아비로서 아내를 그리는 정이 남달리 솔직하게 제문에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대부 위주의 조선조 사회의 관례를 깨뜨린 파

23) 앞의 註15) 참조.

격적인 문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세째, 유배생활, 유배지의 인정, 청빈한 선비의 모습, 당과에 시달린 험난한 관직생활, 유배당한 남은 가족들의 생활, 서민사회의 인심, 이러한 여러가지 사회의 단면을 한 주제 속에 엮어 넣은 뛰어난 長篇 叙事文學이다. 尹塾의 祭文은 유배를 겪은 작가의 작품으로 그 연대가 확실하며 그 내용이 유배생활이 끝난 직후 세상에 대한 염세를 일으켜 심적 상황으로 연속된 유배적 분위기의 성격을 띤 작품으로, 이것은 準流配文學 작품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네째, 「한중록」과 표리를 이루는 작품으로 역사적 기록으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일동장유가」보다도 부피가 적지만 나온 시기가 같고 그 형식이 장편 서사시라는 점에서 조선조 후기의 운문학이 장편서사성으로 흐르는 경향을 보였다는 근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곧 운율이 과격을 통해서 산문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뛰어난 문학성을 지닌 작품이다.

다섯째, 尹塾의 祭文은 부인의 죽음에 애도하면서 유배당한 자신의 처지를 자탄한 데 일관한 것으로 사건기술에 앞서 일기체 모양으로 연월일을 밝혔다는 게 특이하다.

그리고 祭文이 갖는 일관된 哀傷性의 깊이에 있어 尹塾의 祭文의 구조는 亡妻에 대한 哀傷과 유배당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自歎 등의 精神的 狀況으로 자기의 고독과 인식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가 있다.

여섯째, 尹塾의 祭文은 發語辭 ‘유세차’란 形式句가 있고 祭文 중간에 그저 넣어서 祭文의 흐름을 돕는 ‘오호통재며 오호통재라’ 따위의 形式句와 마지막에 ‘오호 애재 상향’ 따위 一行의 形式句도 나타나지 않은 종래의 祭文 형식과는 다른 것으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일곱째 秋史의 「夫人禮安李氏哀逝文」은 일종의 挽書라 할²⁾ 수 있는데 유배생활이란 특수한 사정아래 喪配를 당하여 哀號하는 슬픈 심사를 그린 流配漢文祭文이다. 여기엔 流刑囚로서의 變轉된 스스로의 운명의 자탄 및 비탄과 嫠寡存孤獨의 정감이 표현되어 있어 일반 祭文과는 달리 그 애절함과 비통함이 짙다.

여덟째, 종래의 儒家에서 써 왔던 漢文祭文의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자재로 산문형식으로 썼던 제문으로 夫人에 대한 哀悼와 流配文學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유배지에서 부인이 타계한 소식을 듣고 한 지아비로서 부인의 임종을 가까이 못본 亡妻에 대한 哀逝와 喪妻를 입은 애절, 비탄, 자탄 등의 심적 상황을 표백한 逸品이라 하겠다.

아홉째, 尹塾의 「貞敬夫人 李氏祭文」과 金正喜의 「夫人禮安李氏哀逝文」은 兩者가 流配地 濟州島 大靜縣을 배경으로 했다는 점에서 같으며 또 兩者가 유배지에서 喪配를 입었다는 점에서도 그 운명이 같으나 尹塾 前者의 流配祭文은 放釋된 후 귀가하여 心的 狀況으로 流配的 霧圍氣에 젖으며 夫人의 3年喪 때 썼고 後者의 경우 계속하고 있는 유배중 부인의 타계한 사실을 알아서 祭文을 썼다는 차이가 있다.

Summary

The Funeral Ode Written by Exiles in Cheju Island

Yang Soon-pil

After having studied Youn Suk's funeral ode and Choosa's, I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ir literary values are as follows, from the point of Korean literature.

First, Youn Suk's ode is a peculiar one which doesn't belong to any form of traditional Korean literature, for it is written in Korean by a high official, not as a form of Kasa but as a form of translating Chinese poems into Korean. Traditionally, the Korean funeral ode has been written by a woman and classified into Kyubangkasa.

Second, it is an important ode which has broken a custom of the ranking official-centered Yi Dynasty, for its object is the high official's wife and the conjugal affection is frankly expressed in the ode.

Third, it is an outstanding long epic which represents the exilian life, the human desire in an exilian place, the poor but honest expression of scholars, the hardships in the government post, the life of family of exiles and the hearts of common people. In fact, it is written by an exile and its written period is authentic. Especially it describes the weariness of the world and the successive exilian mood after the exilian life. It can be said that Youn Suk's ode is the masterpiece leading to the age of the exilian literature.

Fourth, it is comparable to Hanjoonglok and it is worthy of the historical document. Though it is not so large as Ildongjangyooga in volume, it is published at the same age. The form of the ode is connected with the tendency towards the long epic in the late period Yi Dynasty. It also shows us the possibility of being a prose poem.

Fifth, this ode consistently expresses Yun Suk's grief of fate and memory of his wife. In particular, the written date is clearly given as in the form of a diary before describing the incidents.

The structure of the ode deepens his loneliness and consciousness along with the sorrow for his late wife and the grief for himself in the exilian place.

Sixth, Youn Suk's ode is characteristic, since it is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form. For example, this ode begins with making sentences, by using the formal phrase like 'Yoosecha'. It also introduces other formal phrases in order to help the effective progress of the ode.

Seventh, Choosa writes his funeral ode in the exilian place in a bitter and sad mood,

grieving his destiny as an exile. Unlike other general odes, the odes by him describe well the deep sorrow and sadness for his dead wife.

Eighth, Choosa's ode is a prose form which is free from the traditional form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t expresses his regret at his wife's death and shows us the real value of the exilian literature.

Ninth, Youn Suk's ode and Choosa's are the same ode in that they chose an exilian place, Dae Jung Hyun as their settings. They shared their fortune with each other because they lost their wives in the exilian place. But they are a little different in that the former is not written until his wife has been dead for 3 years.